

# 완판본문화관, 가족 친화 문화행사 '풍성'

5월 가정의 달 맞아 '전주다운 스무 살' · '마당에서 놀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인 완판본문화관이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가족 친화 문화행사를 연다.

완판본문화관은 오는 5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각각 △성년의 날 신(新)풍속도 '전주다운 스무 살' (13일~14일) △예술인(인) 전주 '마당에서 놀자' (27일)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오는 5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는 '전주다운 스무 살'은 스무 살을 맞은 청년들에게 전주한옥마을과 자신을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완판본문화관을 비롯해 전주부채문화관, 전주 전통술박물관, 최명희문학관 등 전주한옥마을 내 4개 문화시설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된다.

완판본문화관은 '스무 살, 이 순간을 기억해!'를 주제로 손글씨 사진엽서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자들에게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성년의 스무 살을 추억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과 함께 캘리그래피 작가의 손글씨 글귀를 담은 제작 엽서에 자신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행사에는 당일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할 계획을 가진 올해 스무 살(2004년생)을 맞은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12일까지 SN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며, 신청 방법은 구글폼(QR코드 스캔) 및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 #전주다운 스무살 또는 #성년의날 신풍속도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 오는 5월 27일 진행되는 '마당에서 놀



성년의 날 신(新)풍속도 전주다운 스무 살 포스터

자'는 완판본문화관과 문화예술디자인아트스트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완판본문화관은 당일 전주한옥마을 방문객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완판본 악보·음악이 보이는 마당(전시) △싱어송라이터 '유발이' 한옥에서 만나는 꾸꾸마당(공연) △당신의 마음을

그러드립시다·마음마당(체험) △나도 예술가 함께 가지 마당(체험) 등이다.

이 중 '완판본 악보·음악이 보이는 마당'은 완판본문화관과 이다희 작가의 협업 결과물로, 서양의 고전음악과 한국의 전통기록매체(한지, 완판본)와의 융복합을 시도한 작품이 소개된다. 이다희 작가의 '음악번안시스템'을 통해 바흐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완판본 악보는 문화관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완판본문화관에서는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실력과 뮤지션 '유발이'를 초청해 온 가족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익숙한 동요를 주제로 한 공연도 펼쳐진다. 완판본문화관의 한옥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유발이의 사운드 북 '마담꾸꾸' 라이브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완판본문화관에서는 전세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나 내면 초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초선영 작가와 함께하는 내면 초상화 프로젝트와 △(주)반음울림 이리ON △이플 △벨라뮤직 △어센드스튜디오 △에그리나 △클래지크 △레슨하 등 '문화예술터칭아트스트 전문인력 양성과정' 제1기 수료자들이 준비한 다양한 전시, 체험, 공연도 진행된다.

김성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일상 회복과 함께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면서 "완판본문화관에서 기획한 가정의 달 맞이 문화행사에 온 가족이 함께 전주한옥마을에 머물며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셰시봉 리턴스'와 떠나는 음악여행

한국소리문화의전당, 5월 6일 '호 콘서트' 개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5월 6일 오후 7시 모악당에서 '호 콘서트-셰시봉 리턴스' 공연을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는 셰시봉 멤버 중 송창식과 정훈희, 김세환 그리고 셰시봉 친구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함께 한다.

포크를 대중화한 '영원한 가객' 송창식은 한국적 정서를 살린 음악과 성악 전공자다운 빼어난 가창력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싱어송라이터로, 그동안 무대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었던 그의 주옥같은 히트곡들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셰시봉의 뮤즈' 정훈희와의 만남도 기대된다. 정훈희의 데뷔곡 '안개'가 최근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송창식과의 듀엣곡 버전이 대미를 장식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들의 듀엣곡을 들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감성 넘치는



기타 연주도 세 사람의 라이브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27일 전주한옥마을 전라감영 일대에서 혼불문학기행을 진행했다.

# "어린이날 전주역사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5월 5일 바람개비 포토존 조성 · 솜사탕 공연 등 특별행사 진행

전주역사박물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동반 관람객이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일원에서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전주역사박물관은 바람개비 동산으로 변신한다. 박물관은 잔디밭 일원에 바람개비 포토존을 조성해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체험실에서는 선착순으로 어린이 400명을 대상으로 곤충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박물관 야외마당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솜사탕 공연이 펼쳐진다. 사진에 공연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 150명에게는 컵에 담은 달콤한 솜사탕도 제공한다. 사전 신청은 공연당일 오

전 9시 30분부터 박물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관람객 누구나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채 꾸미기 체험과 유아들을 위한 조물조물 모래 놀이터도 운영된다.

어린이날 오후에는 박물관 강연장에서 어린이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후 1시부터는 '토르, 마법 검의 전설'이, 오후 3시부터는 '박물관이 진짜 살아있다'가 각각 상영될 예정이다.

어린이날 특별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www.jeonju.go.kr/jeonjumuseum)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70-4221-1397)로 문의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전국 시도 태권도협회 태권도 용품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17개 시도 태권도협회를 통해 전국 도장 지원 및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용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17개 시도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용품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그 결과 서울·대구·대전·울산·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9개 시도협회를 대상으로 1,900점의 태권도 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 용품은 시도협회 주관 각종 대회를 비롯, 도장 수련생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재단은 5월 초까지 각 협회에 전달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태권도 진흥 및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는 태권도계 유일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지원을 통해 도복 1천여 벌, 보호대 4백여 개, 트레닝복 등 의류 3백여 벌, 태권도화 1백여 켤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 '혼불' 속 장면들 찾아 나선 걸음

혼불기념사업회 · 최명희문학관, 혼불문학기행 다녀와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27일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 일대에서 혼불문학기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혼불' 열권 읽기에 도전하고 있는 독자들이 '혼불' 속 장면들을 찾아 나선 걸음은 문학관과 생가터를 시작으로 경기전·전동성당·풍납문·전라감영 등 전주부성 옛길로 이어졌다.

특히 화가이자 문화관광해설사인 김광숙 씨가 각 명소에 얹힌 이야기를 맛깔나게 들려주고, 이진숙 수필가는 전주가 '혼불'의 배경지가 된 이유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소설에 묘사된 풍경들이 사람들과 한데 어울

려 일상의 정겨운 모습으로 기쁨 있게 담긴 것을 확인하며 소설 속 문장을 낭독했다.

기행에 참가한 이문경(59세·전주시 삼천동)씨는 "항상 다니던 길이지만 해설을 들으면서 걸으니 더욱 색다른 느낌이었고, 특히 전라감영과 경기전의 부속건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친구들이 전주 여행을 오기로 했는데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매년 전주와 남원을 중심으로 한 혼불문학기행과 전국문학관기행을 서너 차례 열어 독자들에게 더 넓은 문학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